

한국어 교육을 위한 사자성어 선정과 제시 방안

김억조*

|| 차례 ||

- I. 들머리
- II. 한국어 교재의 사자성어 교육 현황
- III. 사자성어 목록 선정과 제시 방안
- IV. 마무리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어 교재의 사자성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어 학습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어 직관이 모국어 화자와 다르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는 주로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습득의 관점이 아닌 학습의 관점에서 교재가 구성되고 교육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사자성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존 한국어 교재의 사자성어 목록 선정과 교육 현황은 뚜렷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사자성어 목록 선정과 제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현행 한국어 교재의 사자성어 목록과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재마다 제시된 사자성어 목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용 사자성어 목록이 통일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제시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3장에서는 말뭉치에서 사자성어 빈도를 추출하여 사자성어 목록 선정에 관해 논의하고 공기관계를 파악하여 교육용 사자성어 제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교재 편찬이나 한국어 학습자 사자성어 교육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주제어 : 사자성어,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재, 동형동의 사자성어, 이형동의 사자성어,
한국식 사자성어, 선행어 통합 교육, 후행어 통합 교육

I. 들머리

이 연구는 한국어 교재의 사자성어¹⁾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어 학습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어 직관이 모국어 화자와 다르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는 주로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습득의 관점이 아닌 학습의 관점에서 교재가 구성되고 교육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사자성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한국어 교재의 사자성어 목록은 교재마다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사자성어 교육 현황을 살펴본 후에 사자성어 목록 선정과 제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어 사자성어에 대한 연구는 국어학적 분석²⁾, 다른 언어와 대조·분석³⁾, 외국인 학습자 대상의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⁴⁾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한국어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교재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자성어 목록 선정이나 제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1) 사자성어는 네 글자로 이루어진 한자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굳어진 형태로 쓰인다. 이를 지칭하는 유사한 단어로 ‘한자성어, 고사성어, 성어’ 등이 있다. ‘한자성어’는 한자어임을, ‘고사성어’는 유래가 있는 옛말에서 연유되었음을 나타내는 용어이다(남미혜 2006: 139).

2) 국어학적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는 곽유석(2016) 참조.

3) 대조·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는 장월(20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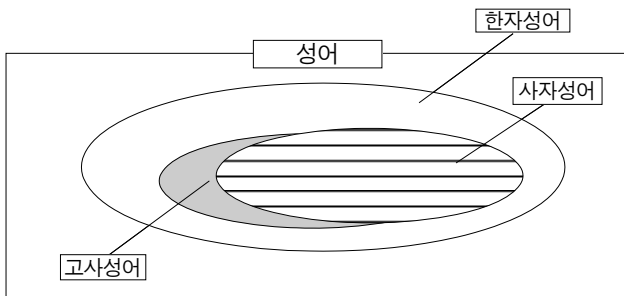
4)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에서의 선행연구는 양치엔치엔(2015) 참조.

많은 한국어 교재에서 사자성어 목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육용 사자성어를 선정할 필요가 있고 제시 방안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교재 편찬 시 사자성어 어휘 선정과 교육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사자성어 목록과 교육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말뭉치 빈도를 기반으로 사자성어 목록 선정과 제시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마무리한다.

Ⅱ. 한국어 교재의 사자성어 교육 현황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사자성어 목록과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전 뜻풀이에 나타나는 ‘성어’, ‘고사성어’, ‘사자성어’, ‘한자성어’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성어, 고사성어, 사자성어, 한자성어’의 범위⁵⁾

5) 송향근·고건(2009: 173)의 [그림 1]에서 ‘성어’를 추가하여 수정하였음.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성어’가 가장 넓은 개념이고 그 중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를 ‘한자성어’로 볼 수 있다. 한자성어 중에 ‘옛 이야기’에 근거하는 것을 ‘고사성어’라 할 수 있으며, ‘네 글자’로 이루어진 것을 ‘사자성어’라 할 수 있다. ‘고사성어’와 ‘사자성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사자성어 중에는 옛 이야기에 기반을 두지 않는 것도 있고, 고사성어 중에는 네 글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 구분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사자성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사자성어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⁶⁾

- (1) a. 한·중 동형동의 사자성어
- b. 한·중 동형이의 사자성어⁷⁾
- c. 한·중 이형동의 사자성어⁸⁾
- d. 한국식 사자성어

한·중 언어에서 (1a)는 형태와 의미가 모두 같게 쓰이는 것을, (1b)는 형태는 같지만 의미는 다르면서 양국 모두에서 쓰이는 것을, (1c)는 4자 중에 일부 혹은 전체가 같지 않지만 의미적으로 같은 것을, (1d)는 한국에서 사용하지만 중국어에서 대응하는 사자성어도, 다른 표현도 없는 것을 가리킨다.

6) 사자성어의 사전 뜻풀이로는 한자어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분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한자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도 이 분류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

7) 동형이의 사자성어는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재에서 추출한 사자성어 중에 이 유형에 속하는 사자성어는 1개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 연구의 조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 이형동의 사자성어는 ‘부분이형’과 ‘완전이형’ 사자성어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더 이상 나누지 않는다.

한국어 교육은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2 언어를 교육하는 것이므로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선·후 순서를 정해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만큼 사자성어 교육에서도 목록을 선정하고, 선·후 순서를 정해서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각 교재의 사자성어 목록과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자성어 목록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한국어 교재⁹⁾에 나타난 사자성어 목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2) a. 대기만성

b. 고진감래, 설상가상

c. 금상첨화, 동병상련, 사면초가, 유비무환, 이심전심, 파란만장

d. 구사일생, 동문서답, 동상이몽, 명실상부, 변화무쌍, 사상누각, 새옹지마, 속수무책, 출선수변, 승승장구, 십시일반, 역지사지, 온고지신, 외유내강, 일취월장, 전화위복, 천생연분, 칠전팔기, 타산지석, 횡설수설

e. 가가호호, 각양각색, 격세지감, 팔목상대, 군계일학, 궁여지책, 금시초문, 기고만장, 내우외환, 노발대발, 노심초사, 다다익선, 다재다능, 단도직입, 당연지사, 대동소이, 대서특필, 독불장군, 막상막하, 명불허전, 무궁무진, 문전성시, 물아일체, 박학다식, 반신반의, 방방곡곡, 부전자전, 불철주야, 사필귀정, 산해진미, 삼고초려, 상부상조, 상전벽해, 선견지명, 십년감수, 애지중지, 어부지리, 완전무결, 왕가왕부, 우왕좌왕, 우후죽순, 유언비어, 유유상종, 이구동성, 인과응보, 인생무상, 일맥상통, 일석이조, 일장춘몽, 자아도취, 자업자득, 자포자기, 작심삼일, 적반하장, 정정당당, 진수성찬, 진퇴양난, 차일피일, 천신만고,

9) 이 다섯 교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교재에서는 사자성어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교재를 선정하였다.

천정부지, 청출어람, 탁상공론, 탄탄대로, 팔방미인, 학수고대, 함흥차사, 행방 불명, 화룡점점

(2)는 5종의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사자성어 목록인데 (2a)의 ‘대기만성’은 연구대상으로 삼은 5개 교재에 모두 실려 있는 사자성어이고, (2b)는 4개 교재에 실려 있는 목록이다. (2b)의 ‘고진감래’는 ‘이화한국어’에 나오지 않고 ‘설상가상’은 ‘경희한국어’에 나오지 않는다. (2c)는 3개 교재에, (2d)는 2개 교재에, (2e)는 하나의 교재에만 실려 있는 목록이다.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 목록 중 3분의 2 이상이 단 하나의 교재에만 실려 있을 정도로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즉 한국어 교재에서 사자성어 교육을 위한 목록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교육에서 사자성어 목록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사자성어 교육 현황

서울대학교 교재에서는 5A와 6A의 보충어휘 부분에 각각 20개의 한자성어¹⁰⁾를, 한자성어(Ⅰ), (Ⅱ)로 나누어 제시한다. 교재 5A는 전설·역사·고전 등에서 유래한 한자성어를 제시하고 교재 6A는 사람의 태도, 행동과 관련된 한자 성어로 주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한자성어 뒤에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도 제시하였다.¹¹⁾

10)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재에서는 ‘사자성어’라는 용어 대신 ‘한자성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물론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자성어’와 ‘사자성어’라는 개념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다. 여기서는 교재에서 사용된 용어인 ‘한자성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11) 서울대학교 교재 5A에서는 객관식 의미 찾기 4문제, 주관식 단답형 6문제, 대화 빈칸 채우기 10문제로 한자성어를 뜻을 이해하고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쓰기 연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재 6A에서는 객관식 의미 찾기 4문제, 주관식 단답

연습문제 다음 상황과 관련 있는 한자성어를 쓰세요.

- 1) 전쟁 동안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았다.
→ 구사일생
- 2) 여제는 다리를 다쳤는데 오늘은 허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다.
→
- 3)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니 나중에는 자신감도 없고 모두 포기하고 싫어졌다.
→
- 4) 민수와 수미가 결혼한다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
- 5) 새해 결심으로 담배를 끊었지만 며칠 후에 다시 피우고 말았다.
→
- 6)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가 외모도 멋있는 데다가 머리까지 좋은 사람이었다.
→

[그림 2] 서울대 한국어 교재

서울대 한국어 교재는 다른 교재와는 달리 [그림 2]에서처럼 상황과 관련된 연습을 통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재에서는 ‘읽기’ 5, 6권의 ‘더 배워봅시다’ 부분에, 한 과에 한 개씩 총 20개의 사자성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3] 경희 한국어 읽기 5

형 6문제, 대화 빈칸 채우기 4문제, 문장 완성 빈칸 채우기 6문제로 한자성어를 활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림 3]처럼 한자의 개별 뜻과 사자성어의 뜻, 예시를 함께 제시하여 의미 파악을 용이하게 했으며 한 과에 한 개의 사자성어를 제시하기 때문에 학습할 때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예문과 활용 연습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

고려대학교 교재(『재미있는 한국어』 5권)에서는 3과, 10과에 각각 4개의 사자성어가 제시되어 있다. 6권 또한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교재에서는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사자성어를 제시¹²⁾하면서 실제 사용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예문이 1개만 제시되어 있고 사자성어의 뜻을 추측하는 활동을 통해 의미 파악하게 하고 있는데 학습자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다양한 예문과 활용 연습 구성이 필요하다.¹³⁾

이화여자대학교 교재에서는 6권에서 각 과의 마지막 장에 사자성어가 3개씩 총 30개가 제시되어 있다. 의미 추측, 의미 연결, 대화 빈칸 채우기 문제, 말하기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추측과 의미를 연결하기 활동은 사자성어의 정확한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더 많은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파악 후에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12) 『재미있는 한국어』 5 p.73 어휘 늘리기

사자성어1 면접

가. 면접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사자성어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 다음 사자성어는 어떤 의미 일지 추측해 본 후, 맞는 설명과 연결해 보자.

① 군계일학(群鷄一鶴)	·	·	④ 다른 사람의 허침은 언행도 도움이 된다
② 외유내강(外柔內剛)	·	·	⑤ 준비가 잘되어 있으면 걱정이 없다
③ 유비무환(有備無患)	·	·	⑥ 겉은 부드러운 속은 강하다
④ 타산지석(他山之石)	·	·	⑦ 평범한 사람들 속의 뛰어난 사람

다. 다음 예문을 보고 사자성어의 쓰임을 확인해 보자.

13) 하지만 고려대학교 한국어 교재는 주제에 맞는 사자성어를 제시하여 다른 교재와는 차이를 보인다. 연습과 활동보다는 예문을 바로 제시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04 어려운 농병상현의 마음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그림 4] 이화 한국어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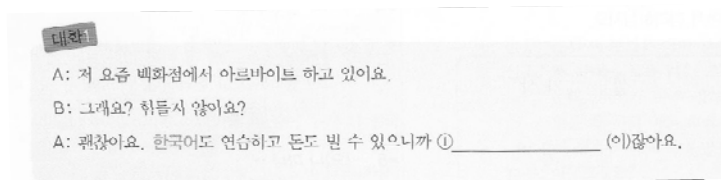
이 교재에서는 [그림 4]에서처럼 사자성어와 관련된 경험 말하기 활동이 다른 교재와는 차별성이 있다. 사자성어의 정확한 의미 교육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말하기 연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서강대학교 교재는 5A의 4과에 걸쳐 사자성어와 속담을 주제로 읽기 I, 말하기 I, 읽기 II, 말하기 II로 구성되어 있다. 사자성어는 총 14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림과 대화를 예시로 들면서 의미 파악을 용이하게 제시하고 있다. 많이 사용하는 표현도 제시하여 실용성을 높였다. 빈칸 채우기 문제, 의미 연결하기, 그림보고 의미 추측하기, 객관식 문제로 많은 활동과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의미 파악(서강 한국어)

서강대학교 교재는 다른 교재와 달리 [그림 5]처럼 사자성어를 제시할 때 그림과 각 한자의 뜻을 함께 제시하여 의미 파악에 용이하다. 그림을 보고 의미를 추측해보는 과정을 거치고 교육이 시작된다.



〔그림 6〕 빈칸 채우기(서강 한국어)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을 한 후 [그림 6]과 같이 대화 빈칸 채우기를 통해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고 실생활에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그 후에는 사자성어 의미 확인 연습과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¹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 교재의 사자성어는 목록이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제시 방안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사자성어 목록 선정과 제시 방안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부족하여 활용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사자성어를 교육할 때는 선·후행하는 단어나 조사, 어미 등과 통합형으로 교육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Ⅲ. 사자성어 목록 선정과 제시 방안

이 장에서는 고려대학교 ‘물결21’ 코퍼스를 토대로 사자성어 용례를 추출하여 그 빈도를 작성하고¹⁵⁾ 이를 기반으로 사자성어 목록 선정과 제시

14) 서강대학교 교재는 다른 교재와 달리 보충학습으로 사자성어를 교육하지 않고 중심 학습으로 사자성어가 제시되고 활동과 연습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성어의 유래부터 실생활 활용 방법까지 뚜렷한 사자성어 교육 목표가 드러난다.

방안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사자성어 선정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장에서는 빈도를 기반으로 목록을 선정하고 교재의 제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말뭉치에서 가장 고빈도인 사자성어가 5729회이고, 가장 빈도가 낮은 사자성어가 3회인데 한국어교육에서 이들 사자성어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¹⁵⁾ 즉 한국어 교육에서 먼저 제시해야 할 사자성어는 한국인이 고빈도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빈도에 기반을 두고 사자성어 목록을 선정하여 제시한다.

1. 목록 선정

기존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사자성어 목록을 대상으로 ‘물결21’에서 구축한 말뭉치의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형동의 사자성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⁷⁾

15) 고려대학교 Trends21 코퍼스(corpus.korea.ac.kr) 용례검색기에서 사자성어를 하나씩 입력하여 검색되는 문장을 텍스트 파일로 작성하여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그 후 AntConc 3.2.2.1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목록을 추출하여 엑셀 파일로 만든 후 수작업을 진행하였다.

16) 2장에서 보았던 서울대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었던 ‘구사일생’은 빈도수 517회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목록의 사자성어 가운데 중간 정도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화 한국어에 제시된 ‘군계일학’은 빈도수 173으로 낮은 쪽에 속한다.

17) 논문 심사과정에서 사자성어의 유형을 나누는 것이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주셨다(이형동의 사자성어를 구분하는 것은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유의미할 수 있으나, 다른 언어권 화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또한 한국식 사자성어는 고빈도인 경우를 선정하면 된다는 점에서 동형동의 사자성어와 구분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심사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감사드린다.

(3) 속수무책(4184), 일석이조(3135), 무궁무진(2878), 설상가상(2104), 유언비어(2071), 노심초사(1766), 이구동성(1764), 반신반의(1629), 금상첨화(1583), 일맥상통(1533), 사면초가(1369), 자포자기(1330), 전화위복(1307), 월가월부(1111), 격세지감(1100), 천신만고(1091), 진퇴양난(1018), 타산지석(961), 동병상련(941), 어부지리(917), 동상이몽(861), 자업자득(764), 대동소이(690), 이심전심(642), 일취월장(569), 구사일생(517), 내외환(484), 화룡점정(474), 천생연분(461), 선견지명(435), 외유내강(415), 삼고초려(393), 대기만성(340), 자아도취(320), 다다익선(303), 온고지신(282), 유비무환(251), 명불허전(234), 청출어람(223), 고진감래(165), 가가호호(163), 팔목상대(159), 인생무상(140), 단도직입(85)

(3)은 동형동의 사자성어 44개의 빈도순인데 ‘속수무책’이 가장 고빈도로 나타나고 ‘단도직입’이 가장 낮은 빈도로 조사되었다. 가장 고빈도인 ‘속수무책’은 한국어 교재에서는 2개의 교재에서만 제시되었고 두 번째 고빈도인 ‘일석이조’는 한 교재에서만 제시되기도 했다. (3)에서 빈도수 1천회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재에서 하나의 교재에만 제시된 것이 12개(일석이조, 무궁무진, 유언비어, 노심초사, 이구동성, 반신반의, 일맥상통, 자포자기, 월가월부, 격세지감, 천신만고, 진퇴양난)인 반면 빈도수 1천회 이하인데도 2개 이상의 교재에 제시된 것이 12개(타산지석, 동병상련, 동상이몽, 이심전심, 일취월장, 구사일생, 천생연분, 외유내강, 대기만성, 온고지신, 유비무환, 고진감래)였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44개의 사자성어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사자성어를 한국어 학습자들이 먼저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이형동의 사자성어이다.

(4) 우왕좌왕(3068), 천정부지(1865), 방방곡곡(1728), 차일피일(1168), 애지중지(1139), 궁여지책(935), 탄탄대로(827), 팔방미인(712), 사활귀정(440),

상부상조(435), 당연지사(423), 금시초문(399), 불철주야(293), 진수성찬(264), 물아일체(61), 십년감수(3)

(4)는 이형동의 사자성어 16개의 빈도순인데 ‘우왕좌왕’이 가장 고빈도로 나타나고 ‘십년감수’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형동의 사자성어인 (4)는 모두 하나의 교재에만 제시되어 있다. 이 유형은 중국어권 학습자들도 모국어에 있는 사자성어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교육 후에는 정답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¹⁸⁾ 앞의 동형동의 사자성어보다 한국어 교육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중에서 고빈도로 나타나는 목록을 선정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존 한국어 교재에 ‘물아일체’나 ‘십년감수’ 등이 실려 있는데 한국인들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자성어인데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들에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은 한국식 사자성어이다.

(5) 명실상부(5729), 승승장구(5139), 우후죽순(2823), 솔선수범(2659), 각양각색(2507), 행방불명(2165), 십시일반(2005), 파란만장(1984), 변화무쌍(1881), 대서특필(1359), 전화위복(1307), 적반하장(1193), 역지사지(970), 문전성시(751), 상전벽해(673), 탁상공론(621), 독불장군(574), 다재다능(512), 학수고대(496), 작심삼일(456), 막상막하(441), 동문서답(432), 사상누각(362), 기고만장(315), 산해진미(309), 인과응보(225), 완전무결(224), 노발대발(216), 박학

18) 필자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형동의 사자성어에서는 중급 학습자의 정답률(81.4%)과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82.1%) 간의 정답률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이형동의 사자성어에서는 중급 학습자의 정답률(61.9%)과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80%)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형동의 사자성어는 모국어에 이 사자성어가 있더라도 모국어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하지 않은 중국인 중급 학습자와 학습한 후의 고급 학습자 사이에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식(180), 군계일학(173), 부전자전(135), 유유상종(103), 칠전팔기(62), 정정당당(57), 함홍차사(41)

(5)는 한국식 사자성어 35개의 사자성어 빈도순인데 ‘명실상부’가 가장 고빈도로 나타나고 ‘함홍차사’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것을 살펴보면 2개 이상의 교재에 나타나는 목록은 8개(명실상부, 술선수범, 십시일반, 파란만장, 변화무쌍, 역지사지, 동문서답, 칠전팔기)인데 이 중에서 2개(동문서답, 칠전팔기)는 빈도수가 너무 낮은 것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박학다식(180), 군계일학(173), 부전자전(135), 유유상종(103), 칠전팔기(62), 정정당당(57), 함홍차사(41)’ 등은 한국인들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자성어인데 한국어 교재에 실을 필요가 있는지 재고되어야 한다. 다음은 사자성어 제시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자성어 제시 방안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부족하여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사자성어를 교육할 때는 선·후행하는 단어나 조사, 어미 등과 통합형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절에서는 말뭉치에서 자주 결합하는 선·후행어와 조사, 어미, 후행어 등과 통합형으로 교재에 제시할 것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선행어 통합

먼저 선행어와 통합하여 제시해야 할 사자성어는 다음과 같다.

〈표 8〉 선행어와 통합하여 제시할 사자성어

선행어	사자성어
-것은(12), 대해(9), 말은(5), 얘기는(20), 이야기는(6)	금시초문
건(47), 것은(111), 게(15)	당연지사
전국(156), 삼천리(10)	방방곡곡
것은(19), 대해(7)	사필귀정
년간(11), 동안(10), 자식처럼(10)	애지중지
-없이(6), -놓고(5), 몰라(6), 채(6)	우왕좌왕
-며(42), -을/를(36) ¹⁹⁾ , -로(52) ²⁰⁾ , 앓고(22)	차일피일
무시한(18), 모르는(16),	탁상공론

〈표 8〉의 사자성어는 제시된 ‘선행어’와 고빈도로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방방곡곡’은 그 앞 어절에 ‘전국’이 156회나 사용될 정도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사용되었다. ‘당연지사’는 앞 어절에 의존명사 ‘것’(건/것은/게)과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함께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조사·어미 통합

다음은 사자성어 뒤에 어떤 조사가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본 일부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떤 단어를 학습하더라도 곡용이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사자성어도 마찬가지이므로 후행하는 조사나 어미와 통합하여 교육을 한다면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9) 지급을(14), 처리를(22)

20) 이유로(32), 핑계로(20)

〈표 9〉 사자성어와 조사 통합

	이/가	을/를	은/는	예	의	(으)로	(이)다
격세지감		19					49
궁여지책						12	36
다다익선				10	20		16
독불장군	7			3	3	8	25
동병상련					42		3
막상막하			4	2	2	2	6
문전성시		13					
사필귀정							70
선견지명	9	10					
설상가상					10	29	12
십시일반						15	
어부지리		36		5		26	4
역지사지					27		13
일석이조					131		248
작심삼일	11	10		7	3	12	8
적반하장					3	4	164
전화위복	12				22	5	7
진수성찬		8	5				4
천생연분	18	21	18	11	17	5	12

〈표 9〉는 사자성어가 특정 조사와 통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이다. ‘천생연분’처럼 대다수의 조사와 골고루 결합하는 사자성어도 있는 반면에 ‘일석이조’처럼 특정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조사 통합형으로 사자성어를 제시해야만 한국어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세심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6) 군계일학(같은3), 독불장군(식(7, 으로12, 의6), 같은8, 처럼6), 우후죽순(격으로104, 처럼14), 적반하장(격으로37, 식(으로)10, 격(인)11)

(6)은 사자성어가 의존명사인 ‘격, 식’이나 조사 ‘처럼’ 등과 함께 쓰이는

경우이다. 모든 사자성어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자성어가 이들과 결합관계를 이루므로 학습자들에게 이들을 통합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은 접사 ‘-하’의 어근으로 쓰이는 경우이다.

(7) a. 대동소이, 반신반의, 일맥상통, 우왕좌왕²¹⁾, 기고만장²²⁾, 대서특필²³⁾, 명실상부²⁴⁾, 박학다식²⁵⁾, 완전무결²⁶⁾, 다재다능

b. 왈가왈부²⁷⁾, 자포자기, 팔목상대, 변화무쌍²⁸⁾, 술선수범²⁹⁾, 승승장구³⁰⁾, 역지사지³¹⁾, 정정당당³²⁾, 파란만장³³⁾, 노발대발

(7a)는 ‘하-’와만 사용되는 용례이다. ‘대동소이’는 ‘-하{다/비니다/르/다는/니/나/거든요}’가 붙어서 사용되는 용례가 9회 쓰였고 다른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신반의’도 ‘-하는(17), 했지만(7), 하던(7), 하고(4), 했다(4), 했었다(4), 했던(3), 했는데(3), 하면서도(3), 하면서(3), 하며(1), 했어요(2), 하더니(2), 하다가(2)’로 ‘하-’와만 결합되어 사용된다.

21) 하-(14)

22) -한(3), -할 만하다(1), -할(1)

23) -했다(3), -한(2)

24) -한(4)

25) -한(3)

26) -해야, 한, 한다는

27) -할(8), -하는(6), -하지(2), 하지 않고/하는가/하겠는가(3)

28) -한(2)

29) -해야(6), -하는(6), 하겠다(3)

30) -하는(7), -했던(5), -하고(5), -할(4)

31) -하는(4), -해야(4)

32) -한/하다고, 하게(3)

33) -한(9)

(7b)의 ‘알가알부’는 (7a)와 마찬가지로 ‘하-’와 주로 사용(-할(8), -하는(6), -하지(2), 하지 않고/하는가/하겠는가(3))되지만 이는 ‘알겠다(3), 말라(2)’ 등과도 사용되는 용례가 보인다. ‘자포자기’도 ‘끝에(4)’와 결합하여 교육해야 하는 용례이다. 괄목상대{할(2), 하계(2), 할 만하다(1)}, 명실상부한(4), 박학다식한(3), 변화무쌍한(2), 술선수범{해야(6), 하는(6), 하겠다(3)}, 승승장구{하는(7), 했던(5), 하고(5), 할(4)}, 역지사지{하는(4), 해야(4)}, 정정당당{한, 하다고, 하계}, 파란만장한(9) 등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후행어와 통합하여 제시할 것이다.

3) 후행어 통합

다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조사나 어미와의 통합형보다는 특정 단어 앞에서 명사나 부사적인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표 10〉 후행어와 통합형으로 제시할 사자성어

사자성어	후행어
가가호호	방문(64)
천신만고, 궁여지책	천신만고 끝에 (1032), 궁여지책 끝에(28)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32)
방방곡곡	돌아다니며(6), 어디서나 (5)
불철주야	노력하-(33), 뛰-(11), 일하-(10)
상부상조	정신
애지중지	가꾸-(5), 기르-(28), 모으-(11), 키우-(155)
차일피일	미루- ³⁴⁾
천정부지(로)	치솟-(6)
탄탄대로	위에(4)
노발대발	난리가(2)
승승장구	중이다(26), 중(인)(16)
우후죽순	생겨나 (154), 들어서-(25), 늘어나 (11), 생기-(16)

34) 미루고(246), 미루다(182), 미루는(132), 미뤘다(86), 미루다가(84), 미뤄(78), 미뤄지
고(68), 미루며(64), 미뤄졌다(52), 미루면서(42), 미뤄져(34), 미뤄왔다(34)

‘가가호호’는 전체 용례가 고빈도로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앞에서 사용되는 용례가 64회 검색되므로 ‘방문’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신만고’는 후행어로 ‘끝에’가 결합하여 ‘천신만고 끝에’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무려 1032회나 된다. 그러므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천신만고’를 제시할 때는 ‘천신만고 끝에’와 같이 통합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IV. 마무리

이 연구는 한국어 교재의 사자성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국어 학습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어 직관이 모국어 화자와 다르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는 주로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습득의 관점이 아닌 학습의 관점에서 교재가 구성되고 교육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사자성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한국어 교재의 사자성어 목록은 교재마다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사자성어 교육 현황을 살펴 본 후에 사자성어 목록 선정과 제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현행 한국어 교재의 사자성어 목록과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한국어 교재마다 제시된 사자성어 목록과 교육 방안이 천차만별임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사자성어 목록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말뭉치에서 사자성어 빈도를 추출하여 사자성어 목록 선정에 관해 논의하고 공기관계를 파악하여 제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교재 편찬이나 한국어 학습자 사자성어 교육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어대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 고려대학교 한국어 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 5, 6, 교보문고, 2010.
- 곽유석, 「현대 한국어 사자성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p.1-171.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김성희 외, 『서강한국어 5A 읽기·말하기』, 서강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007.
- 남미혜, 「사자성어의 유형과 문법」, 『어문연구』 1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pp.139-163.
- 서울대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 5A, 문진미디어, 2012.
- 송향근·고건, 「한국어 사자성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사전학』 13, 한국사전학회, 2009, pp.171-189.
- 양치엔치엔, 「사자성어(四字成語)를 통한 한국어 교육방안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p.1-60.
-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9/2003.
- 운평어문연구소, 『국어 대사전』, 금성출판사, 1995.
- 이수행 외, 『이화한국어 6』, Epress, 2012.
- 이정희 외, 『경희 한국어 읽기』 5, 6, (주)도서출판 하우, 2015.
- 장 월, 「한·중 사자성어 비교를 통해 한국어 사자성어 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학습자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p.1-132.
- 최은숙 외, 『서울대 한국어』 6A, 투판즈, 2015.
-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2.

Abstract

Selection and Educational Measures of Four Character Idioms for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Kim, Eok-J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ur character idiom and educational state of 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to suggest measures to improve it.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are usually foreigners, and for that reason their linguistic intui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native speakers. Since they are often adult learner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extbooks and establish educational measures not from the perspective of acquisition, but from that of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The education of the four character idioms is also confronted with the similar condition: the existing lists of four character idioms are markedly varied depending on the current Korean language textbook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that the selection of the four character idiom lists, and educational improvements are significant to the Korean language formation, by investigating the four character idiom educational state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Chapter 2 examined the four character idiom lists and the educational state of the current Korean language textbooks. It verified that the four character idiom lists and the educational measures, suggested by each textbook are prominently varied. Hence,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selection of the four character idioms and educational measures in the field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hapter 3 discussed the selection of the four character idioms by abstracting the frequency of the four character idioms from a corpus, and suggested the educational measures by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co-occurrence. The findings may contribute to editing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establishing additional updated educational measures to teach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the necessary four character idioms.

Key Word : Four-character idiom,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textbook,
Four-character idiom with same form and same meaning,
Four-character idiom with different form and same meaning,
Korean-style four-character idiom, inclusive education of antecedents,
inclusive education of descendents

김억조

소속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ukjokim@hanmail.net

이 논문은 2018년 01월 22일 투고되어 2018년 03월 0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03월 09일 게재 확정됨.
